

건협 강원도회, 최문순 도지사 만나 인프라정책 제안 간담회

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17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(현 도지사)와 “강원도 주요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정책제안”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에서 도회는 강원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했다.

이를 바탕으로 강원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실행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.

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은 “강원도

는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구별되는 지역 및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.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해 인프라 공급 불균형과 노후화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전 위협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”며 “이번 정책제안이 강원 지역의 인프라 투자 정책 수립과 더 나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건협 강원도회는 앞으로 일정을 마련해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에도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.

임성엽기자